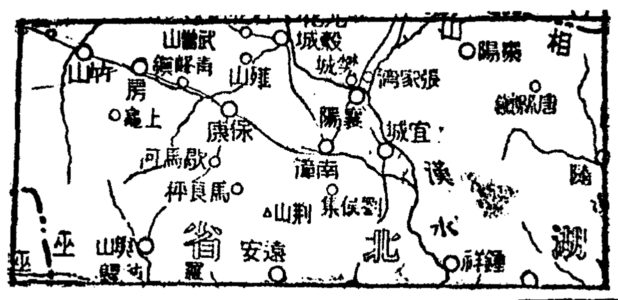
朝鮮日報
第二夕刊
六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襄西地區에電擊戰
敵陣地南北으로壓縮
南漳張家場은이미陷落

【○○五日發同盟】大軍漢水를渡河、川俣、吉川各部隊는 이어서 猛進하여 一齊히 敵前渡河를敢行 巴系山脈의 嶮峻을克服하면서 五日朝來 漢水西岸의 敵陣西端에 對하여 南北兩翼으로부터 猛烈한 總攻擊을 展開하고있는데 我軍은 所在의 敵을擊破殲滅하면서 大戰局을 縮하고있다 卽北方兵團은五日朝 襄陽、宜城公路의 敵據點快活鋪(宜城南方三十粁)東西의 線에躍進하고 南山 長橋 石橋 大澤 原田各部隊는 快活鋪南方의 朱家 草湯 胡家集等의據點에據한 敵을擊破하고 快調의進擊을續하여 敗敵을 南方利河의線으로 急追中이다 同部隊前面의敵은所在의 軍需品集積場에 放火하고 敗退하였는데 敵의軍需資材損失額은 이미多額에 達하였다 또五日早曉 快活鋪西方三十粁 要衝仙居를 陷落後 그西方四十粁에 있는 山田線을確保한 田中、山口、井出、川...



揚子江上艦艇活躍

【漢口六日發同盟】中支艦隊報道部發表
一、海軍漢水部隊는 潛江附近에進出、四日陸軍部隊의 敵前渡河作戰에 協力하였다
二、揚子江上艦艇은 漢口上流八十哩藕口附近에서 或은 安慶下流八哩新江口、湖口方面에서 陸上敵遊擊隊의 集團을銃砲擊하여 陸戰隊를揚陸、이를敗走시켰다
三、江上航空部隊는 安慶西方三十三粁 潛山其他揚子江沿岸與地의 偵察爆擊을 連日實施하고있다

佛蘭西內閣大改造
首相、外、國防兩相兼攝

(레이노首相)

【巴里五日發同盟】未曾有의 難局에直面한 레이노首相은 五日夜內閣의 大改造를 發表하여 레이노首相自身이外相及 國防相을兼攝하기로되엿다(第一夕刊의 佛內閣總辭職은 外相의 誤報)(寫眞은 레이노首相)

佛新閣僚

【巴里五日發同盟】레이노首相은 五日夜突然 內閣改造를 斷行하여 그陣容을 左와如히發表하엿다

首相兼外相兼國防相 폴·레이노
國防次官 도골將軍
保健相 죠르쥬·페르노
情報相 쟌·프르보(巴里소와르及巴里마지紙社長)
土木相 루이·프롯사(前情報相)
敎育相 이봉·데르보스(急進社會黨元外相)
藏相 부·테이리에(大藏省官房總長)
大藏次官 보도안

智利鑛業地帶에 總罷業勃發形勢

【안토라가스타五日發同盟】智利勞動組合안토라가스타地方委員은 銅、硝石鑛山業의 中心地인 안토라가스타에서 總罷業을 斷行코저하고잇는데 總罷業이 勃發되면 三萬六千의 勞働者가 參加할것으로보인다

從化戰線—從化北方의 敗敵을 追擊、惡路를 무릅쓰고 追擊하는 吉武部隊

南總督 近衛公訪問

【東京電話同盟】南總督은 六日午前十時三十分 荻窪의私邸로 近衛公을 訪問要談하엿다

伊、全水域機雷敷設
外國船舶出入도禁止

【羅馬五日發同盟】伊政府는 五日全沿岸에 危險區域 設定을宣言하엿는데 어어서伊本土는 勿論 領沿岸에도 機雷를 敷設하기로 決定하엿다고 左와如히發表하엿다
政府는 伊太利全領土沿岸에機雷를 敷設하기로 決定하엿다 따라서 伊太利半島에 接한海面과 아드리아海 附近에서의船舶航行과 리비아 沿岸의地中海海域에의 接近은 危險하게 되엿다
【羅馬五日發同盟】伊政府는 五日全沿岸에 亘하여 危險區域設定을宣言 右水域에 對한各國船舶의 出入을 禁止하엿다 政府宣言은 如左하다
伊沿岸에서 十二海浬의水域을 全部航行危險區域으로한다 따라서 伊海岸에 近接하려는各船舶은伊政府의許可를어더야한다

全伊燈火管制實施

【羅馬五日發同盟】伊政府는五日全國에對하여 燈火管制令을發하엿다

在佛伊太利大使館 撤退事務開始

【巴里五日發同盟】伊太利와의 決裂이 벌서不可避로 判斷되고잇슨데 在巴里伊太利大使館은 五日撤退事務를開始 하고 本國撤退의 伊太利居留民 保護에 盡力하고 잇서 其他의 事務에 奔忙하고 잇서 伊太利의 動向을 決定할時機가 어미目睫間에 切迫되엇다는 늣김을 주고잇다

취칠英首相 敗戰非難應答演說

【倫敦五日發同盟】議會에 再開되는 下院에서 처칠首相은 이가튼非難에 應答하기爲하여 來十一日下院秘密會에서 答辯하기로 되엇다 ...

佛軍陣地數個所突破

【巴里五日發同盟】佛軍當局은五日全戰線에서 獨軍機械化部隊가 佛軍陣地數個所를 突破한 事實을 發表하엿는데 右獨軍部隊는 强行 包圍되어잇다고 말하엿다

獨第二本格的作戰

【伯林五日發同盟】獨軍의 당케르크攻略에 依하여 戰局은 第二의 本格的 段階에突入하엿는데 獨軍司令部 發表에 依하면 新戰線의 西端 아브빌附近에서 佛部隊의 失敗에歸하엿다 一方獨空軍은戰鬪機 急降下爆擊機를 動員하여 아브빌方面에 集結中의 佛部隊及 大部隊로서 逆襲을試하엿스나 獨軍의 猛擊으로 이에多大한 損害를 주엇다

戰勝祝賀의伯林

【伯林五日發同盟】伯林의 街路는 當然한 戰勝 祝賀로 一週間 全獨逸은 今日부터 旗가 翩翻하게 되엿다

獨軍目標는巴里
各戰線激戰展開中

【巴里五日發同盟】獨軍은五日早曉부터 各戰線에서 大攻勢를 開始하엿는데 獨軍의 攻擊이 巴里를目標로 하고 있는것은 明白하다 ...

佛軍東南獨逸爆擊

【巴里五日發同盟】佛航空省發表 一、佛空軍은 五日獨軍의 新攻勢를 開始한 全三線에서 地上部隊와 協力하여 各地區에 活動中이다

英東南海岸 外人居住禁止

【倫敦五日發同盟】英政府는 五日 英東南海岸 外人居住禁止地域 內務省令 警察長의 特別許可를 받지 아니하고는 居住할수 잇섯다 ...

米歐羅巴艦隊 司令官更迭

【華盛頓五日發同盟】米國海軍省은 五日目下 리스본港에 碇泊中인 特別歐洲艦隊司令官의 更迭을 發表하엿다

帝國과協議當然
佛租界警察權任意讓渡는不許
鈴木興亞政務部長見解披瀝

【東京電話同盟】上海佛租界工部局에서도 極히重大視하여 그것이 事實이라고하면 東亞의 新事態下에 佛工部局이 米國側에 佛租界警察權을 讓渡說이잇는데對하여 興亞院 鈴木政務部長은 左와如히 見解를披瀝하엿다

英은精神力이不足
愛國心에불타는芬蘭人
中村軍司令官과倉茂部長談

歐洲戰亂에 獨逸軍의 乘勝長驅와 英佛聯合軍의 敗走의報道는 世人의注目을 集中시키고잇다 ...

▲中村軍司令官＝佛蘭西軍은 獨逸軍에게 손을 내어놀수업는 모양이다 ...

▲倉茂報道部長＝이번 歐洲動亂을 돌때에 ...

一般의協力切望
農業報國週間實施와
總督府農林局長談發表

三橋警務局長歸任 來十五日로變更

新任外事課長 十四五日頃着任豫定

民政黨依然冷靜
永井氏町田總裁訪問

【東京電話同盟】民政黨의 永井柳太郞氏는 五日夜 町田總裁를 訪問하고 ...

八面鋒

人事·集會
◆李恒來氏(前鐵道局技師)退官後 京城北部辦事所에서 運送業開業

外出과運動에 旅行과遠足에
銀粒 蔘香丹
疲勞와倦怠를 업새는生活素
容器와定價 彈丸型 十錢 四角(平)型 二十錢 袋入(用器付) 三十錢
製造發賣元 京城府通義町三五ノ南十六 安田藥業社

七日밤부터四日間 府民館公演
十日(端午)은晝夜2回興行
阿娘 近來의 一大 히트
名作林仙圭作 全四幕 百萬長者와 遺言狀 맛장이(?)
演出 朴珍 舞臺裝置 元雨田 舞臺照明 崔進 音樂 金駿泳
阿娘全員 全機能總動員
西鮮 北鮮 滿洲 巡演 六月中旬부터

新興京都特作 女人峠 (よにんとうげ)
幕末の風雲のなかに咲いた一輪の花! 戀に問える苦難の愛情峠
野淵昶演出 國友和歌子·市川男女之助 森靜子·大友柳太郎·歌川絹枝·浅香新八郎
七日封切 新興名畫女性週間
全女性に贈る淚の問題篇!
現代女性の悩む何か罪か?
辯護士の告白 或る女
美鳩まり·逢初夢子·小柴幹治
新興東京超大作 演出·深田修造 脚本·陶山密
階下席四十錢 毎日午前十時上映 新興京城劇

官廳의臨時賞與制
民間側에反響甚大
數日來許可申請會社가四十件에到達
定額生活者에朗報、當局도許可方針

사변이후 물가는 날절 이상이나 올랐건만 봉급으로나 상여로나 … 봉급생활자의 생활을 생각하고 이달에 임시상여를 주기로 되었는데 … 생활상여를 주겠다고 … 부재무국에 허가신청을 제출한 회사가 벌써 사십건에 달한다 … [illegible]

創氏定者 全人口의七割六分八厘
道別로는慶北의九萬七千餘件이最高

총독부법무국민사과(民事課)조사에의하면 … 창씨제도가 실시된이래 … [illegible]

國營産金送電線 最終年度의建設計畫
遞信殖産兩局間에決定된內容

국영산금송전선(國營産金送電線)의 최종계획년도인 소화십오년도에 있어서 산금송전선의 건설계획은 전번부터 체신 식산양국사이에 협의를 진행하여왔는데 이제야겨우 양국사이에 의견이일치되었다 그런데 그계획의 내용은다음과같다

一、六萬六千KV의 路線九個所 亘長四百七十粁

一、二萬二千KV의 路線二十二個所 亘長四百八十三·五粁

一、二萬二千KV(會社補助線)三十六個所 亘長千三百二十三粁

우공사는 대체로 명년중에는완성될예정이다

井上上等兵 名譽의戰死

[illegible]

洋服店窃盜 一黨을捕盡

[illegible]

來十日부터一週間 農業報國週間實施
全朝鮮農山漁村이農民日을中心으로蹶起
國家總力戰의責務認識强化

[illegible]

移秧督勵班
農業週間中各地에派遣

[illegible]

"體格檢査는 大體로良好"
南朝鮮志願兵檢査狀況視察한 中村軍司令官歸任談

[illegible]

江界高山面에山崩 一家族四名死傷

[illegible]

牙山郡內에 腸疾扶斯蔓延

[illegible]

京師生自殺

[illegible]

三萬圓의工事費로 校舍增築에着手
槿明實踐女學校設備擴充

[illegible]

東高小學後援會 第十五回定總

[illegible]

略式命令으로 松本訓導에罰金

[illegible]

培材運動會開催

[illegible]

全朝鮮團體卓球 高麗青年會主催

[illegible]

遊廓街夜叉 路上에서逮捕

[illegible]

弄奸부린米墨 京畿道經警이摘發

[illegible]

純麥餅製造講習

[illegible]

西部 住宅地造成計畫
中間策動으로買收困難
府當局最悪의境遇엔土地收用令發動方針

[illegible]

發疹한學生 天然痘로判明

[illegible]

病死、溺死二件

[illegible]

豫防拘禁令 發布、十月로延期

[illegible]

昨年一年間에 電報取扱件數
比前年四百餘萬通激增

[illegible]

東亞競技大會 第二日
霸氣滿滿한國際戰
東亞大會方酬

[illegible]

比島軍이勝利 對中國籠球戰

[illegible]

比島復式에快勝

比島 64 (38 26 / 24 12) 37 中國

[illegible]

東京在學生과朝拳 對抗拳鬪擧行
本社後援、八月上旬에

[illegible]

陸海軍御指定 ハイソール 最强消毒藥 石炭酸ノ8倍

朝鮮式大建物任住宅賣分 京城府東崇町二〇一ノ五 新興建築社 尹相普

금자박는그게 カメヤ

大發明

월경

生徒募集

住宅地

朝報

朴齒科 院長 朴扶文榮 院長 朴金祚

賣却 一、建物 … 一、什器類 … 右來ル昭和十五年六月十二日午後一時當會社事務所ニ於テ入札ニ依リ賣却可致候條御希望ノ方ハ御來社被下度候 丸計鮮滿運輸計算株式會社 代表清算人 高橋仁作

製造卸商 漁具 投網 鳥網と釣具 京城竹添町一丁目 網屋

邁進强力精 ニクーハ首蔘 宣傳無料試飲會 六月五日부터九日까지 丁子屋五階 朝鮮物産賣場에서 —이러한분에게— 虛弱腺病質、早老、健忘症、神經衰弱、ヒステリー、陰萎、早漏、夢精等의生殖器衰弱、病後衰弱、肺結核、貧血症、虛弱幼兒、虛弱姙婦、産後衰弱、冷症、消化機能不良、食慾不振、心臟衰弱、調經、眼精疲勞等 製造發賣元 慈善堂製藥株式會社 京城鍾路二丁目 賣捌元 株式會社木村藥房 京城本町四丁目

松竹大船映畫 6月の感激大作 みくにの皇國の妻 川崎弘子！涙の絶對篇です!! 近日上映 川崎弘子 佐分利信 森川まさみ 三原純 明治座

大陸劇場 涙の責任 君若き頃 午前十一時開演

파나마帽와 麥稈帽子 本파나마……8.70…33.00 千草파나마……6.80…27.00 本파나마代用……1.50…6.80 麥稈帽子…….80…2.20 三階 여름婦人服과雜貨 爽快한 여름洋服과 雜貨를 具備 和 京城

連日滿員盛況!! 和信映画館 六層 今週푸로 九日까지 1 大日本뉴-스 2 파라마운트뉴-스 3 華麗한할스 4 地下室이되기까지 5 … 6 水泳日本 7 科學映畫 8 믹키-와 … 9 … 뉴-스 10 눈은마음의窓 開場 每日午前十時半 入場料 一人20錢

나의卒業論文主題

"제임쓰·죠이쓰"의 文學
—그의 作家的 態度와 "스타일"

孫正鳳

(筆者는 今春에 早大英文科를 나온 秀才로서 特히 現代英文學에 對한 研究에 精進하고잇다)

②

무릇 作家는 크게 두種類로—本能에依해서 쓰는本能的作家와 理智를 따라서 쓰는 意識的作家로 區分할수잇을까한다. 本能的作家는 偶然이 스스로 偶然이되고저하는 意識가든 決定的手段을따라 作品을 쓰고저하는 意識을 가지고잇다. 그들은 想像을 消하여 온갖 素材를 選擇하면서 制木이 成長하는것과가튼 狀態로 作品을 써간다. 때문에 그들은 偶然과 마찬가지로 自己가 무엇이며 또 무엇을 하며잇는가에 對한 解答이업시 다만 그들이 쓰며잇는것을 써갈따름이다.

이에反하여 意識的作家는 애초부터 秩序잇는 概念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具體化할 目的미테서만 作品行動을 하는것이다. 그들은 素材를 選擇하여 體系的完成을 期하며作品을써간다. 때문에 그들은 自己에對한 自覺이 明確하고, 그러면서도 自己가 征服하고저하는 素材의 要求에對하여서는 모든 點에잇어서 自己를 抑制할수잇는것이다.

내가 作家에게 이가튼區別을 세운것은 『죠이스』야말로 偉大한 意識的作家의 한사람이라고밋는때문이다. 그는 二十年以後에 벌써우리들이 『靑年期의 藝術家의 肖像』(第五章)에서 볼수잇는것가튼 藝術의 概念을 確立해서 作家로서의 揺籃期라고 볼수잇는 一九〇五年以前에 씨어진 그의處女詩集 『室內樂』이나 短篇集 『더블린의사람들』이 이미 作家로서의 完成性을 가추고잇다는事實은 무엇을意味하는것일까? 여기서우리는完全한 意識的作家로서의 『죠이스』의 第一步를 볼수잇지 안흘까? 지금까지 알려진 觀點으로『죠이스』研究의 權威者들, 例하면『스튜아-트·길버-트』등을爲始하여,『허버-트·리드』『해리·레빈』등 諸氏까지도 이 作品을 『죠이스』를 理解하는데 잇어서 不可缺한 길이 아닐수업섯다.

그중에서도 가장 發達된『죠이스』의 解釋者로써 定評밧는『허버-트·골만』氏는말한다. 『『죠이스』의『肖像』은 古典主義的인 『엘리자베스』朝의 模倣에 不過한것이요『더블린의 사람들』은 特히 그의 非個性的인 作品이라고』 이가튼 그릇된 解釋는 正히 本能的作家와 意識的作家를 區別하지못하는 곳으로부터 말미암는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의 初期에잇어서 模倣的이며 또 模倣者일수도잇다. 그러나 自然한 意識的作家의 反省 그러한 見解는 오히려 適用안되는 性質을 갖지못하는것이다. 『죠이스』의 『室內樂』은 그의 [illegible]形式에서 完成된 抒情詩 形式의 美를 所有하여 아울러 그의 個性의 一面이 表現된 것이다. 同時에 그것은 潛在的인 意識的性格의 거짓업는 表白인 것이다. 同様으로『더블린의 사람들』은 外觀的形式의 具象化이며 그의 個性의 다른 一面인 古典的性格의 表現이라는것을 나는 主張한다. 이것을 理解하는 곳가는『죠이스-즘』을 理解하나 그의『유리시-즈』를 理解하는가 못하는가의 分岐點이요, 根本問題이다. 열쇠는바로 거기에 잇다.

作家의 個性이란 主로 [illegible]에 다분으로 敎養에 依存하는것이지만, 여기서 나는『죠이스』의 微妙한 性格과 特異한 敎養에 對하여 簡單하나마 說明하지안홀수업다. 그는 特히 宗敎에 對한 濃厚한 情操와 아울러 銳利한 理知的頭腦를 겸한 物的存在다. 따라서, 自我分裂이 激甚한 浪漫的性格의 所有者나, 오래동안 『제쉬잇』派의 學校에서 바닷은 嚴格한 宗敎的敎育으로부터의 概念的訓練은 그의 理智를 한층 날카롭게햇스며 『아리스토텔레스』와『토마스·아퀴나스』에의 熱烈한 私淑과 歸依는 그의 날카로워진 理知로하여금 整然한 古典主義的 藝術觀을 지니게햇다. 그러나 그의 浪漫的感性은 依然히 이처럼 부르짓는다. (原文省略)

나는 저 甘美한 가슴속에 잇고십구나 (오오 甘美한 浪漫한 가슴!)

거기엔 거센 바람도 안 차저오겟지.

서러운 苦悶한 만허 나는 저 甘味한 가슴속에 잇고십구나.

感性과 理性, 浪漫性과古典性, 主觀性과客觀性—이가튼 相反하는 性質의 精神的葛藤은 비록 程度의差는 잇서도 아모에게서나 發見할수잇는 現象이다. 다만 兩者의 勢力이 消長함에따라 優勢한 性質의 것이 行動을支配하는때문에 劣勢한것은 나타나지안흘따름이다. 그러타고 하드래도『죠이스』에게잇서처럼 精神的葛藤이 伸張하여 分裂이 激烈한 例가 업을것이다. 行動은 永遠히 그에게對하여 [illegible]의 懷疑를 일바게 업다. 行動은 自己主張이다. 性格에잇서서의 分裂狀態는 同時에 行動의 分裂狀態를 意味하는것이지만) 自己主張을 躊躇한 한편으로 『죠이스』는 本質的으로 自己를 救하기爲하여서는 藝術에 逃避치안흐면안될 運命의 作家이다.

單一한 固定된 人格을 要求하는 現實의 世界와는달러, 作品의 世界에서는 相反하는 性質의 性格을 各各 適當한 人物에게 假託하여, 完全한 自己主張을 하게할수잇는 때문이다. 그것은도리어 作家에게 잇서서 無上의 幸福한 條件이기도하다.

春衣 ……(第十九回朝鮮美展特選作)…… 金仁承

動亂下의 英文壇 (下)
新"秩序"의 "要望"

林學洙 譯

보다 大規模한 綜合을『S·라다크리슈난』敎授의『東洋宗敎와 西洋思想』에서볼수잇다. 그는 [illegible]世紀를 實施하는 우리들의 古典과 基督敎의 文化를 印度의 普通하여본 即 西洋의 立場에서본 歐羅巴와 또한 이무서운事態에 處하여서도 아직도 創造的인 目標를 향하여나갈수잇다는 希望과 確信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의 意圖하는곳은 東洋과 西洋의 天才를, 靈的幻影과 實際的合理를, 思惟와 行動을 調和하려는데잇다. 그리고이 個別的인 世界를 集團的인 世界로 進展시키려한다. 이는 아마 一般에게는 한갓 꿈으로밧게 보이지안흐리라. 그러나 이冊을 읽으면 누구나 印度의 思想과 實踐의 究極的인 即 個個의 肉體와 精神的 表現이 다시 合하여지는것처럼 實現될수잇는것이라는 信念을 굿게하게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데 合하여진 綜合體를 만들必要를 力說하는 점으나 그러나 要領잇는 著書는『서! 프랜시스·영허스밴드』의『事物의 總計』일것이다. 이는 歐羅六週日間에 쓴것으로써『코렌시스』가 行動과 思索의 人으로서 또는 오래동안 東洋에 居住하고 回敎와 印度敎와 道敎를 西洋의 自然科學과 함께 研究한사람으로서 人生에서 무엇을 배웟는가하는 그의 解決을 보여준다. 그는 이러케 世界의 第一化를 夢想하엿다.

그러나 보다 適正한 意味로서의 哲學的인 두 著書는 『매더-리』敎授의『科學의 境界』와『歷史案內』다. 前者는 心理學을 哲學的으로 測定하려는 最初의 試驗이라는 意味에서 意義가 잇고 後者는西洋이 참된 基督敎의 領域을 實現하기에 失敗하고 오직 猶太人만이 除外된 二元論에 차츰 떠러지고 잇다는 [illegible] 點으로서 注目을 끈다. 그러나 基督敎가 歐羅巴의 歷史에 如何한 役割을 하엿는가 또現在『파시슴』과『히틀러』의 獨逸에 如何히 作用을 하고잇는가에 그는 날카로운 解釋을 나렷다.

神秘的 哲學의 內容이 實用心理學으로 더부러 잘 融合된것은『E·그린할·호우』『L·르·메슈리엘』의 共著인 『어리건』이다. 여기에는 平易하고 單純한말로 個人과 社會의 生活을 統治하는 原理인『리듬』이 如何히 하여 破壞하게 되엿는가 또그는 어떠한 根本的인 整理를 맛미아마 復興할것이며 해야할것인가가 解決되어잇다.

事實 그릇된 伸長力의 消解策으로서 아모冊도 이冊만큼 도움이 되지는 못하리라.

산過去

全體主義思想과 實踐 또는 力의 時代의 生活의 解釋者로서『로-렌스·비니온』의 講演『藝術과自由』와『E·M·포-스터-』의 小論集『나의所信』의 兩冊은 藝術家의 敏感과 참된 人格의 綜合의 永遠한 價値를 宣揚한다. 그리고 끄트로 大思想家들의 箴言集으로『앙드레·지-드』編인『몽테뉴』『S·좌의』編『룻소』『로맹·롤랑』編『간디』,『토마스·만』編『쇼펜하우엘』『T·드라이저-』編『라-로-』等도 暗示하는바 만흐리라고 밋는다.

如何間 現在와가튼時代에는우리는 破壞的인 思潮에 對抗하여 理想과同胞主義의 創造的인 信念을 붓구기위하여 우리들의 모든知的能力을 動員할必要가 잇는것이다. 이들思想家의人生觀은서로 다르는바가 잇슬것이나 그러나 그들의모두가한 상갓게 人間의 威信을主張하엿고 또그들은 自由人으로서 이세상에그自身을如何히 處하엿든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다라는것을强調하고십다.

漢詩募集 滄東考選

題 綠陰

押 侵韻部

期限 六月十五日

(漢詩部宛)

第19回 朝鮮美展 (西洋畵) 評 (上)

吉鎭燮

그림을하는 한사람으로서다른 作家의 作品을 評한다는 것은그리 향그러운 일이안될수업겟고 作家가또한 評論家아닌 作家에게 評을바들때처럼不快한일이 업을줄안다. 그럼으로 나는評을 쓰라는本意도아니고 다만 美展에 對한 그감, 따라서 作品에서 바든 나의印象에 지나지 안흘것이다.

美展이란 自體에서 오는느낌보다도 또한이 美展이주는 그림美展作家의 地位와評價의 느낌보다도 먼저 느껴지는것은 畫家, 即作家가 評論家까지 하지안흐면 안된다는 이朝鮮[illegible]진 性格을 創造되는 한作品인 藝術全體的에 構成할때를 더나아가 새로운 發見과 美에 對한 探求가 잇서야만 비로소 한作品이라할수잇을것이고 藝術이라 할수잇슬것이 아닐까.

藝術의生活을 가지므로서自己가 研究하는 한世界를 形成하고 그로하여금 文化의 役割을 가지게된다면 어떠한 國際的의機構에 出品하는 境遇되지라도 먼저 自己畫壇고 作品을 알어야할것이다. 畫家는 藝術家면 벌서 藝術家라야만 할것이다. 文化人으로의 地位의선다. 따라서文化人은 自己地位와 새로운美意識을 가저야할것이다. 그러에도 不拘하고 이美展에 [illegible]

이 今日에 만흔 成功와 損失을 가젓다는것에 [illegible] 게된다 왜 그러냐하면 美展이 十九回를 거듭하는 동안에 다른우리의文化는 어느 程度의 發展을가지고 잇는냐 보는것보다 時代的美術의 자리에노코 새로운批判을 가질必要가 잇다는것이다. 이러한見地에서 美展이가진 作家와 作品의水準을論한다면 [illegible]

무드데벨이야다. 그러고 어떠한形式의 水準을두고 藝術의 形式을가지는지 알수업스나 入選作品은 藝術作에잇서서 獨特하게 美術가이다. 이러한것은 主催者側에서도 새로히 陳列場所와 가치 作品의 水準도 노력한 나이를 먹은 美術에 왜 [illegible]

것일까. 거리에 天幕을치고 會場에 行人을 모아드리는 [illegible]가치 作品의 質으로 서大衆에게 美展을 주라는 [illegible] 效果보다도 美術의 質에잇서서 大衆의 鑑賞眼을 向上시키고 [illegible] 美術界의 本質을 들이 [illegible]한일이 아닐까

한다. 또한 出品하는 作家들에게 잇서서도 美展을 通하여 [illegible] 作家의 位置를 理解하라 [illegible] 自己를 가지기前에 먼저 [illegible] 作品의 價値를 理解하는 [illegible] 한作品이 [illegible] 어떠한 效果가 [illegible] 가를 알때 [illegible] 에 [illegible] 되는 [illegible]을 알게 [illegible]한다. 作品은 어디까지던지 아름다워야한다. 아름다워야 [illegible] 自然보다 아름다워야한다.

이것은 美展會場에 [illegible] 파 [illegible]에서 느끼바 나의한 낫 [illegible]에 지내지안켓고 다음으로 [illegible]에 남는 [illegible]의 作品의 印象을 적어볼까한다.

當選漢詩 滄東考選

落花

佳作之一

京城府[illegible]洞一四二 韓斗淵

風掃雨催瑛可嗟
溪山轉覺減春華
巧黏因錯苔紋點
亂舞更隨蝶影斜
公道悲吾今白髮
芳園戀爾昔紅葩
非無歲歲重開日
奈此餘生別路除

북·레뷰—
金松氏戲曲集 山의勝敗

李石薰

年前에『湖畔의悲歌』한後의 戲曲集으로써 力量잇는 健實素朴한 作風의 新進劇作家로『데뷰-』한金松氏가 그後 전혀『저-날리즘』을떠나 오로지 沈默속에 지니더니 이번에 第二戲曲集『山의勝敗』를 刊行하여그 저간의 精進이 一層의 進境을 보여주고잇슴은 비단 친구의 한사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寂寞한 우리劇壇을 위해서도 깃브고 慶賀할바이다.

이 戲曲集은 咸鏡道山間住民의 生活을 貧困과 愛慾의 角度에서 映寫와 哀悼와 그리고 多分히『유-모어』로써『스냅』한『山의勝敗』를 爲始하여 作者生活을그린『放浪記』 新婚生活의『갈』을 그린『바다의秘密』『마리아·마리』『개와 狂人』等 여덟篇의 力作을모흔것인데 作風은 역시 前作『湖畔의悲歌』와 가튼系列에서 나온것으로 한마디로말하면 素朴한『리알리즘』이다.

그의『이데올로기-』는 人道主義的이나 그것이 作品의 前面에까지 露出지는 안코 오이려 人道主義以前의 아름다웁고正直한 人間性本來의 따스한 感情의 흐름이 作品의구석구석에 横溢하고잇스며 對話는 比較的 都會的洗練과는 距離가잇는 地方的非洗練의 美를 가진 素朴한『유-모어』와 [illegible] 成하여잇다. 欠을 말하자면 作品이 [illegible]

그러나 이作者의 本領은 都市的洗練의小細工的『데코레이숀』에 잇지안코『스케일』이 크고 野性的인 이를테면 北國的인 陰影이 지튼 沈鬱한 世界이므로 現代人 사치롭다기는 都會人의 口味에는 좀더 刺激이 不足할것이나 그것은 作者의 個性에 關한 問題이니 不得已한 일일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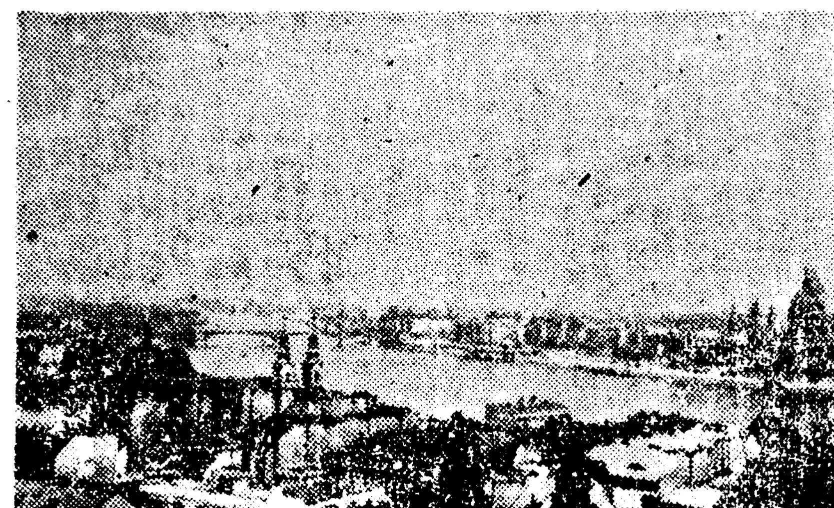
하여튼 多分히 北歐的系列에屬하는 무거운 劇作家로서의 金松의 力量은 이 한卷으로써 充分히 味得할수잇는 同時에 멀지안흔 안날 좀더 巨大한 力作을 보여줄것을 그의 愛讀者의 한사람으로 期待하는바이다. (定價一圓二十錢 京城府[illegible] 博文書館發行)

"비엔나"그리웁다! (四)

荷潭 都宥浩

이야기는 좀새삼스럽거니와『도까야』를 내가처음 맛보기는것은 맨처음『뿌다페스트』로 갓섯슬때이다. 나는 維納의 海外學生俱樂部에서 趣味잇는 匈牙利旅行을 計劃을 [illegible]해섯다. 어느날저녁 俱樂部食堂에안서 茶한잔마시노라니 이한靑年이 내겨테와안즈며 『여보, 이게 큰일낫구려, 내가 얼마前에, 싱거운수작난을 한번했더니 장가도가기前에 벌써아버지노릇을 해야될려이구려 그나저나 如何間 내가將次 아버지가되겟스니 기쁘기는 합니다. 자, 將來아버지 놀리러갑시다. 놀러나갑시다.』 하여 그靑年에게 끌려나가『와인』한盞 어더먹은일이 잇다. 그後그는 곳歸鄕하엿는데 며칠後내가『뿌다페스트』로 처음갓슬적에 호올로 거리를散步하다가 그靑年을 나는 邂逅하엿섯다. 그때 나는 도중에서 酒店에를 끌려들어갓섯는데 그는거기서 바로이『도까야』를 한잔 내여 주엇다. 그것은 私生兒의 아버지가될 [illegible]『린』이라고 [illegible]하엿섯다. 그게 어찌도 맛낫든지!

匈牙利는 歐羅巴의 中에 안즌 東洋의 一國이다. 거기가보면 人種은 白人이지만 아직도 東洋的情緖가 이구석저구석에 남어잇다. 그리고도 匈牙利사람들의 氣質은 그야말로 元氣旺盛하고 感情的이며 形容하기어려운 趣味잇는 무엇이그들에게는 잇는것이다. 이제 그靑年도 처음들어서는 不良靑年이아니면 밋친놈이라고하기쉬웟겟스나 匈牙利人의 氣質을 좀알고보면 넉넉히 理解할수잇는것이다.『陰鬱한日曜日』이 有名한 流行歌에 처나오자 靑春男女가 연하여 自殺을하엿다는것도 匈牙利에잇서서는 그럴듯한 일이다.『陰鬱한日曜日』! 들을째면『뿌다페스트』로갓을적에『레코-드』를 사려 다니다가, 어느 樂器店에 들어가서 들은것中에는 참말 悲哀한曲調의 노래가하나 잇섯다. 그것을나는 忽然 사섯다. 그래 그樂器店에 놀러와던 어떤 한 靑年하나가, 서투른 獨逸語로 그것이 自己가 불어넛흔 판이라고하기에 거기에『싸인』까지 바덧더니, 後에 알고보니, 그판의소리가『陰鬱한日曜日』이요, 그때 그歌手가 問題의『세비』君이엿섯다. 그소리판을 나는 故國에까지가지고왓다.『陰鬱한日曜日』!『다늅』運河畔 나의宿所에서 [illegible] 그노래를 들을때마다, 내가늘 [illegible]



그리도 陰鬱해젓는지! 그『레코-드』노래를 그樂器店에서 처음들을때 一行中의『매텔린』孃의 빰에는눈물이나고 우던記憶은 아직도새롭다! 지난날 생각에 어리異性의빰에 나리우는 물가기도하다!

그때『뿌다페스트』의 宿所에서, 一行中의 同伴들은 모두 市街구경을 나가섯고 나혼자 藤椅子에 누어쉬려에 늙은 乞師한분이 그집 뜰악에 들어와『친발도』를 두다리고 잇섯다. 무슨노래曲調엿든지는 모르나 그것은 참말東洋的 音樂이엿섯다. 그때그 音調가 내마음을 어찌도 誘惑햇든지! 異域에 노눈조인 내가슴속에서는『노스텔지』한孤寂이 생솟듯 하엿섯다.

『뿌다페스트』에서 며칠을지나서 米國人 同行들과 여이고 나는『빨라톤』湖畔으로 나려섯다. 내가머물던곳은『빨라톤뒤레트』엿섯다. 旅館잡지 너무비싸서 값싼데를 이리저리 求하여다니다가 묵한간어든곳은『뿌다페스트』에서 自營하는 學校敎員노릇을 하는어떤분의 시골집이엿섯다. 그집에는 바로 葡萄園이 잇섯기에 그때나는 거기서 葡萄를 어떠케 먹엇든지! 匈牙利사람들은 매운것을조하하니 그 飮食이 朝鮮飮食에 近似하거니와 시골에 와보면 그것은 더구나 그러타. 그리하여 나는 거기서 맛나는 飮食을 실컷 먹엇다. 그리고는 오슬각이로 藥水먹으러갓고 오는길에는 때때로 主人없는 왜지나무에 올러가 그열매를 실컷따먹고 그리고는 湖水로나가서 헤엄을치고왓다. 山업는 平地나라 匈牙利湖水까의 六月末은 더구나따거웟스니 그反面에 水泳하는맛은 더잇섯고 또氣候가 그러케더웟기에 葡萄가 別로도 달게익고 따러서 葡萄酒맛은 남달리도 달콤한것이다. 그때거기서 一週日間을 나는 참말愉快히 보내엇다.

(寫眞은 뿌다페스트市)

이것은 英國民의 貯蓄을 獎勵하는 英國의 "포스터-"다. 戰爭을 遂行하는데는 貯蓄이 必要하다는것을 强調하고 [illegible] 하는데는 惡龍과 그것을 征伐하는 騎士라는 그림을 引用하엿다.

⑥ 포스터-의 戰爭

孫子講義 九地篇(十)

李昇圭

九地篇(上)

夫衆陷於害然後에 能爲勝敗니라

【註】 [illegible]이日 士卒이 이미危地에陷함속 마음이專一하여 能히勝하기도하고 敗하기도하나니라

【通解】 무릇 무리가 害에빠진然後에 能히勝敗를하나니라

故로 爲兵之事는 在於順詳敵之意니라

【註】 詳은佯으로同이라○梅堯臣이日 敵의意를順히하여 거짓약하고 거짓물려가고 거짓이기하고 거짓敗하여 敵人이가벼히오면 나의뜻이 이에엇나니라

【通解】 故로兵을하는일은 敵의뜻을 順히하여 거짓하는데 잇나니라

并敵一向이면 千里殺將이니라

【註】 曹公이日 兵을并하여 敵에向하면 비록千里라도 能히 그將을사로잡나니라

【通解】 내兵을 한데合하여 敵에一向하면 千里에將을죽이나니라

此謂 巧能成事者也니라

【通解】 이것을 巧히여能히일을이루는者라 이르나니라

是故로 政擧之日에 夷關折符하여 無通其使니라

【註】 [illegible]

厲於廊廟之上하야 以誅其事니라

【註】 [illegible]

敵人開闔은 必亟入之하야

【註】 開闔은 [illegible]니 [illegible] 잇서오거든 반드시빨리 드릴지니라

【通解】 敵人의開闔는 반드시 빨리 드려서

先其所愛하고

【註】 敵의[illegible]에게 仔細히무러서 먼저그便利하고 愛[illegible]하는바를 [illegible]하고

【通解】 그사랑하는바를먼저살피고

微與之期하고

【註】 [illegible]이日 조금[illegible]을 어내여서 [illegible]으로하여금 도라가 告하게하고 [illegible]하라 하라미라

【通解】 조곰期約으로 주고

踐墨隨敵하야 以決戰事니라

【註】 王晳이日 兵法을[illegible]기를 [illegible] 것과가듬이라○敵이 나의[illegible]에 [illegible] 나는 兵法의[illegible]을조차 敵人의形勢를 따라 決戰하는것이라

是故로 始如處女하야 敵人이 開戶하고 後如脫兔하야 敵不及拒니라

【註】 曹公이日處女는 弱한것을보이미오 脫兔는가기를빠르게하미라

孫子講義九地篇終

伊太利에도 落下傘部隊

【羅馬發同盟】白耳義戰線에 어든 獨逸落下傘部隊의 劃期的成功에 刺戟되여 바야흐로 戰場이무르녹아가는伊太利에서도 落下傘部隊의 研究가 盛行하여 最近에 正式으로落下傘部隊가 編成되엇다한다 伊太利는 벌써 에디오피아戰爭때에 벌써 落下傘에 依한 食糧品의 空中投下를 해서 大成功을 어든 經驗에 비추어 매우 新落下傘部隊의 成果에 期待를 가지고잇다 血氣한 伊太利靑年은 이 [illegible] 하고 落下傘兵을 志願해와서『파시스트』產業組合總裁『가포페리』氏는『뭇솔리니』首相에 對하여『파도우와』의 勞働者多數가 落下傘兵을 志願해왓다는 [illegible]을 傳達햇다고한다.

옷지못할世上

法律을모르기때문에 당치안흔悲劇을惹起

[illegible] 一般人에게는 絕好의 法律의 [illegible] 東京市杉並區下高井戶一ノ五五 東京書院

中學講義

便紙를 쓰는법

[illegible] 東京市杉並區下高井戶一ノ五五 東京書院

滿座한사람을깜작놀라게하는 隱藝圖解全書

[illegible] 東京市杉並區下高井戶一ノ五五 東京書院

珠算배우는法

[illegible] 東京市杉並區下高井戶一ノ五五東京書院

말쓰는法

[illegible]『正しい言葉の使ひ方』[illegible] 東京市杉並區下高井戶一ノ五五東京書院

梅園先生著 速成上達 便紙習字쓰는法

惡筆은一生의損一代의羞恥다

[illegible] 振替東京八〇二一四 東京書院

祝辭와人事 弔祭演說

[illegible] 高井戶一ノ五五東京書院 [illegible]

正當한 簿記하는法

[illegible] 東京市杉並區下高井戶一ノ五五 東京書院 [illegible]

利潤率一割三分 配當基準七分五厘

利潤專門委員會의中間報告

平和產業의利潤統制

戰時의 低物價工業利潤統制實施要綱은 七月一日부터 實施키로되 [illegible]

根本方針

現在 實際利潤보다 極力低下케할 方針으로 ——

自己資本? 總資本?

正常時期

配當基準率 拂込資本에對하여七分五厘로함

社內留保基本率 利益金의四割로함

納稅相當額 利益에 對한納稅相當額의比率을二割五分으로함

自己資本의構成比率

自己資本에잇어서의 拂込資本과其他(積立金外에前期繰越金을包含)와의比率은 이것을七八對二二로

對自己資本利潤率

以上의構成으로서하면 資本에對한利潤率은 一割三分으로된다

總資本의構成比率

經營上의 總資本에 잇서서의 自己資本과借入資本과의比率 은 七五對二五로함

對資本利潤率

適正利潤率

資本에對한率로 換算하면 九分八厘(約一割)로됨

會社經理全面統制

勅令一本으로公布實施方針

個別的、實情主義排除

【東京電】我經濟界는 價物問題 여直接으로는 配當制限을 目標 實上 經理統制의 確立은 어미 物資問題等으로부터 統制를 强하고 또同令第八條에 基하여 不可能한 事態로되엿다 그러므 化하고 陸軍에서는 지난四月二 資產償却利益金 處分等의 諸點로 大藏省當局으로서 는 從來 十二日에 軍需工廠의 利潤統制 을全히 實情主義에 依하여 個 의 法規及 그運用으로서는 그 方式을 設定하여 時局에即應한 別的으로 解決해왓섯다 또一方 目的을 達하기가 困難하다고하 對策을 講究하엿는데 大藏省에 會社職員給與令도 經理 統制의 여 이것을 改正하여 經理統制 서는 今般이에 呼應하여 會社經 一部로서 運用되엇고 또臨時資金 만의 立場에서 그對策의 確立 理를 全面的으로 統制하고저 또 金融整備法도 個個의 具體的運用 을 調整方針으로하엿섯인데 從來 디어 그具體的方策을 研究하기에 에依하여 經理統制의 役割을하 의經濟統制의 動向을 强化하면 着手하엿는데 이것이 完成되면 엿다 그러나 最近時局이 進展됨에 서 實情主義를 取해온데比하여 一本의勅令으로서 公布될것이다 今般의 方針은 會社의經理를直 即政府의 經濟統制方策은 昨年 따라서 인플레抑制、低物價政策 接으로 指示하려는것이어서 臨 四月에 總動員法第十一條에 基 의堅持、物資需給의適合等 모든 重의 利潤統制案과함께 一大劃 하는 會社利益配當制限令에依하 問題의見地에서 戰時經濟의 運 期的인것이될것으로 보인다

內外兩面으로適正化

經理의內面嚴查

流動資產運用도取締

【東京電】그具體的 成案은아직 公表되지안핫스나 [illegible] 잇는데이 도今後問題로 되어잇는데 그動向은 從來의配當制限에 나 또 適正利潤의 設定等 外面的統制外에 다시 固定資產의 減價償却에對해서도 嚴重히規定하고 流動資產의 運用에對해서도 同樣으로 嚴重히 取締하여 全面的內面的으로 經理의 適正化를 圖하려는데 에잇다 例를 들면 現在 事業界에 잇서는 物資不足을 豫想하고 原材料를 必要以上으로 思惑的으로 所持하고잇는者도 잇는데 이것이物資不足에拍車를加하여 物價高騰을招來하며 또銀行貸出을 固定시키며 延하여는 公債消化를阻害하고잇는 實情이 매우만흠으로 이러한點을 取締하여 適當以上의所持를 嚴禁하며 統制한結果 私는 이것을 公債消化에 充當시키고 或은 積極的으로 製品價格引下를 勸奬할 方針이며 이러하여 會社經理의 各部面에 統制를 確立하려는것이다

朝鮮도實施

別項과가치 社會의經理를全面的으로 統制키爲하여 一本의勅令을 公布實施코자 目下大藏省에서 研究中인데 이것이成案되면 朝鮮도勿論 가튼內容의統制가實施케될것이다

肥料統制協議 七月二日開催

昭和十五肥料年度의 各道需給推算其他를 聽取할 肥料統制協議會는 七月二日부터 三日間에 亘하여 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開催하기로되엿는바 聽取事項及協議事項은 如左하다

一、聽取事項

1、道內에잇서서의 本肥料年度 肥料配給의實情

2、道內의 明肥料年度肥料給推算

3、道內의 本秋播種用綠肥種子의需給推算

二、協議事項

預金과貸出增加 五月末京城組銀狀況

五月末現在 京城組銀預金貸出狀況을보면 預金總額은 三億九千二十六萬圓으로 五月十五日現在에比하여 九百五十萬八千圓、前年同期에 比하여 八千一百七十二萬七千圓의各增加이오 貸出은六億四千二百二十七萬二千圓으로 同月十五日現在에比하여 四百六十四萬九千圓、前年同期에 比하여 一億五千五百四十六萬六千圓의 增加이다

東拓支店貸付增加

五月末日現在 東拓京城支店의 貸付는(單位圓) 定期二四、八二五、九三一 年賦一二、四八九、七六一 計三七、三一五、六九二로 前月末에比하여 五百二十六萬六千圓의 增加이다

不渡手形 五月中增加

京城手形交換所 五月中의 不渡手形은 小切手、約手、爲手를 合하여 人員五十一名、枚數七十枚、金額十萬四千九百六十八圓으로 前月中에比하여 人員에잇서 十八名 枚數에잇서 十八枚 金額에잇서서 三萬五千七百九十四圓의 各其增加이다

預金利下는無期延期 預金逃避가두려워서

朝鮮內의各銀行을 中心으로하고 預金利下는當分無期延期로 하라는 論이 支配的으로 有力하게되고잇서 其後經濟方面에서 金融情勢의推移를 注視하고 그機運을 노리고 잇스나 最近朝鮮內의 金融事情은 各銀行이 모두 手許資金은 非常히 窮寒하게되고잇스며 目下 이러한 金融情勢는 緩和되지안흘情勢이므로 各金融機關이 모두 利下에 依한預金의 逃避를 두려워하여 金利利下에는 消極的態度를 가지고잇서 이대로가면 利下의 時期는 當分間到來치안흘모양이다

伊藤正德氏講演會

同盟通信社參與 伊藤正德氏는 六月十二日午後『아까쯔기』로 入京 十三日 朝鮮經濟俱樂部主催의 講演會에서 『戰局의批判과國際情勢』라고 題하여 講演하고 十四日午後四時發 아까쯔기로 退京 小倉에向할豫定이다

朝鮮產既製服等 公定價格決定 八、九日頃告示、實施

總督府에서는 六日午前十時부터 第二十一回物價委員總會를開催하고 左의各種物價를公定하여 來八·九日頃에 告示實施할터이다

△朝鮮產既製服 要足袋 人絹織物及絹織物(內地產生地를朝鮮에서 加工한것)의生產者 工場渡 販賣價格

△內地產 淸酒麥酒 뻬루·粉乳 煉乳 馬鈴薯 澱粉의 販賣價格(麥酒는改正)及料理店 飲食店 旅館 카페·빠-의 酒類販賣價格

△朝鮮產알미늄製品及 鐵 의販賣價格

△코-스타-·치와 其副製品 火藥原料의 販賣價格

再製銑製造事業 極高度統制實施

四工場에限定해認可

殖產局에서는 再製銑製造事業을 統制키爲하여 이것을製鐵事業法에基한 許可事業으로 決定하고 朝鮮內各工場에서 許可申請한 三十九工場中 慎重히 銓衡한結果 四日에 左의四工場만許可하고 殘餘三十五工場은 不許可處分에附하엿다 時局柄 [illegible] 本事業은 從前의運營 [illegible]

京城鑄物(京城) 昔藥鑄工所(京城) 群山機械(群山) 吉田鐵工所(釜山)

殖產局長談

이에對하여 如左한 殖產局長談을 發表하엿다 [illegible]

畜產主任官會議 諮問·協議事項

總督府에서는 來二十四日부터 三日間 總督府會議室에서 各道畜產主任官會議를 開催하는데 諮問協議事項은 다음과갓다

▲諮問事項 一、主要家畜飼料需給現況及對策 二、牛、馬、羊增殖計畫實施狀況과 그實績舉揚 特히要望한施設事項

▲協議事項 一、畜產生產擴充의方策에關한件 二、畜牛共濟事業充實에關한件 三、緬羊飼育成績向上에關한件 四、豚增殖計畫에關한件 五、兎增殖計畫에關한件 六、內地馬移出에關한件 七、主要家畜飼料配給에關한件 八、朝鮮畜產會社則成方策에關한件

運輸同盟會 新會長選任

朝鮮運輸同盟會에서는 五日午後四時 朝日報社講堂에서 行委員大會를 開催하고 會則一部改正을하고 會長과 副會長一名을 選任한結果 會長에는 北部朱景植氏、副會長에는 仁川陶池直士氏가 當選되어 朱會長은同會로 臨席한 鐵道局小運送係長의 說明을 듯고 散會하엿다

滿鐵貸與北鮮線 割引運賃設定

鮮鐵과滿鐵線 聯合運賃으로

[illegible]

輸出入迅速許可 一元的申請取扱

貿易大會提出議案

[illegible]

輸出工藝品展覽會 十月初京城、海州서開催

朝鮮에잇서서의 輸出工藝品의 海外進出을 圖하기爲하여 [illegible]

明朗化難期

現物軟勢

株式同調 軟勢浮動

今日의市勢 六日

京城物價 六日

[illegible]

今日現株市勢(正午調)

[illegible]

海外經濟 五日

▲東京國債

[illegible]

銀行券 五日

[illegible]

金利手形交換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株式

[illegible]

綿布

[illegible]

生糸

[illegible]

綿花

[illegible]

鰯油粕·麥粉

[illegible]

三一 穀物取引店 營業案內進呈 京城府 黃金町

三國志 【207】

韓龍雲 譯 熊超 畫

三顧草廬 (六)

마당에 바게서서 오래 기다리되 동안이 업는지라 드러가보니 현덕이 오히려 기다리고 섯거놀 장비가 크게노하여 운장에게 말하되

『그선생이 어찌그러케 거만하뇨 우리형님이 뜰아래에 기다리고 섯것을 보고도 마침내 노피누어서 자는체하고이러나지 아니하니 내가 집뒤에가서 불그덤이를 던져서져의 이러나고 안이러나는것을 보리로다』

운장이 두세번 만류하며 현덕이 두사람을 명하야 문박게나가 기다리라 하고 초당을처다보니 공명이 몸을뒤처 이러나고자 하다가 홀연히 벽을안고 다시 자는지라 동자가 보하고자하데 현덕이 말하되

『아즉 놀내어깨우지 말라』

하고 한시간이나 섯더니 공명이 겨우깨어서 시를 을펏다

『큰꿈을 누가먼저 깨엿는고 평생을 내가스스로 아는도다 초당에 봄조름이 족하니 창박게 날이 더듸고 더듸도다』

공명이 시를을푸고 몸을도리켜 동자에게 뭇되

『손님이 오섯너뇨』

동자가 말하되

『유황숙이 저기서서 거다리신가 오래니다』

공명이 몸을 일으키며

『어찌 일찌기 보하지 아니하엿너뇨』

하더니 다시

『옷을 가라입으리라』

하고 안으로 드러가서 반나절이나 잇다가 의관을 정제하고 나와마자 현덕이 공명을보니 신장이 팔척이오 얼골이 관옥가트며 머리에 윤건을쓰고 몸에 학창의를 입엇는데 표표하야 신선가터라 현덕이 절하고 말하되

『한나라의 못생긴 자손이오학군의 미련한 지아비로 선생의 큰 이름을 우뢰가치 드러서 두번이나 차저왓다가 한번도 뵈옵지못하고 천한이름으로 편지를써서 노앗더니그것을 보앗더뇨』

공명이 대답하되

『남양의 들사람이 성기고 게으른것으로 성공을 이루엇는대 여러번 장군의 차지심을 입사오니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겟노라』

두사람이 예를마친뒤에 손과주인의 자리를 나누어안젓다 동자가 차를 드린뒤에 공명이말하되

『전일에 편지를보니 족히 장군의 백성을 근심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보겟스나 다만내가 나이어리고 재조가 적어서 무른지를 그르칠가 하노라』

현덕이 말하되

『사마덕조의말과 서원직의말이 어찌 헛되리오 바라건대 선생은 더럽고 천한것을 버리지마시고 간곡히 가라처 주소서』

『사마덕조와 서원직은 세상의 노픈선비오 나는 한 밧가는 지아비라 어찌감히 천하일을 말하리오 두분이 그릇 천거하엿도다 장군은 어찌 아름다운 옥을 버리고 쓸데업는 돌을 취하려느뇨』

『대장부가 세상을 건질만한 기이한재조를 품고서 어찌부지런히 숨풀밋헤에서 늙그리오 원컨대 선생은 천하의 창생을 생각하고 나의 미련한것을 여러주소서』

공명이 우스며

『원컨대 장군의 뜻을 듯고자하노라』

『한나라가 장차 기우러 지고 간사한 신하가 명을 도적질하는고로 내가 힘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큰의를 천하에 펴고자하나 지혜가 엿고 꾀가 버서 나가는바가 업스니 오즉 선생은 미련한것을 열고 곤한것을 건저주시면 실로다행하겟노라』

『동탁이 반역한이래로 천하의 호걸이 아울러 이러난지라 조조가 형세로는 원소에게 멋지못하나 능히 원소를 이긴것은 천시뿐이 아니라 또한 사람의 꾀라 이제 조조는백만의 무리를 거느리고 천자를 껴서 제후를 호령하니가히 더부러 칼날을 다툴수가 업고 손권은 강동에 웅거하여 이미 삼대를 지낫스며 나라가 험하고 백성이 부따르니 가히써 구원을 삼을지언정 도모할수가 업스되 형주는 북으로 한면(漢沔)을 웅거하고 남으로 바다를 것스며 동으로 오회를 연하고 서으로 파촉을 통하니 그것은 군사를 쓸만한땅이라 그주인이 아니면 능히 지키지못할지니 이는하늘이 장군에게 주는바라 장군이 어찌 [illegible] 부(天府)의 나라이라 고조가 그로인하여 임금의 업을 이루엇나니 이제 유장이 어둡고 약하야 백성이 성하고 나라가 부하되 다시릴줄을 모르는고로 슬기잇는 선비들이 밝은주인 엇기를 생각하는지라장군은 나라의 종친으로 신과의가 사해에 드러나며 영웅을 거느리고 어진이 생각하기를 목마른것가치하는지라 이때에 [illegible]